

이승미 우석대 학생취업처장, 국민훈장 목련장

우석대학교 이승미 학생취업처장이 11일 열린 2023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 HW컨설팅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현숙 여성기획부장관을 비롯해 가족정책 유공 포상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가족 분야 전문가인 이승미 학생취업처장은 1995년부터 우석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가족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주관인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의 우석대학교 영유아 발달지원 인재양성 사업단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내 취약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검사를 실시하고, 중국 칭지우대학교의 국내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련 사업의 국제화에도 일조했다.

특히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모태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소장과 대통령실 여성기획비서관을 역임하며 지역 가족센터 활성화와 아이돌서비스 지원사업, 결혼이주여성 지원 및 건강기정기본법 제정 노력 등 28년간 가족정책 발전에 이바지했다.

이승미 학생취업처장은 “우리 사회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활동과 가족지원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독립 연구자 꿈 이루다

김용찬 전북대 박사, 정병훈 교수 연구실서 프리온질환 연구… 안동대 조교수 임용

전북대학교 김용찬 박사가 최근 안동대학교 생명과학과 조교수에 임용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 박사는 전북대 분자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생리활성소재과학과 프리온 분자유전학실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뒤, 정병훈 교수 연구실에서 박사후 과정 및 연구교수로 재직했다.

김 박사는 프리온 질환의 진단 기작 및 치료제 분야 전공자로 프리온분자유전학실에서 석·박사 및 박사 후 과정 등 6년 반 동안 제1저자로 SCIE급 논문 58편



을 발표했다. 이들 논문 중 인용지수(IF) 20 이상 2편, 10 이상 2편을 포함해 JCR 랭킹 상위 10% 이내 15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2019년 한국연구재단의 글로벌박사 펠로우십과 2022년 ‘세종과학펠로우십’에 선정됐고, 2021년에는 교육부 장관상과 전북대 총장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정병훈 교수는 “교수로서 가장 보람된 일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때인데, 김 박사가 석사 입학 시 가졌던 독립 연구자의 꿈을 해외 유학 경험 없이 조기에 달성해 정하고 뿐만 아니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마약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춘성 진안군수는 11일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는 미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이 미약범죄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진행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최근 미약시민이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한에 따라 전 국민에게 미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춘성 군수는 주현오 진안경찰서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초·중·고등학생들과 군민의 안전과 안녕을 수호하자는 상징적 의미로써 김호경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변성섭 NH농협 진안군 지부장을 지목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 ‘zgm.고향으로’ 카드 가입 행사 실시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지부장 김범석)이 11일 황인홍 무주군수와 함께 ‘zgm.고향으로’ 카드 가입행사를 개최했다.

zgm.고향으로 카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NH농협은행에서 출시한 특화 카드로, 카드발급시 선택한 기부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가맹점 이용시 최대 1.7%가 개인에게 적립되고, 매년 사용액의 일정부분(0.1%)이 공익기금으로 조성된다.

공익기금 지자체는 최초 카드발급시 지정할 수 있으며,



우는 zgm.고향으로 가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조성된 공익기금은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황 군수는 “고향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공익상품인 zgm.고향으로 카드를 기부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지부장은 “고향을 새기고, 고향에서 혜택받고, 고향을 키우는 행위를 통해 더 넓은 관계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NO EXIT’ 캠페인 동참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11일 미약 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 미약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NO EXIT’ 캠페인은 지난달 26일부터 연말까지 경찰청에서 미약 범죄 근절을 위해 진행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으로 참여 방법은 미약은 출구 없는 미로라는 뜻의 ‘노엑시트(NO EXIT)’ 이미지와 함께 인증 사진을 활용하고 SNS에 게시하면서 후속 주자를 지목하면 된다. 지목을 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영일 의장은 “최근 미약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준 기자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미약범죄 예방 캠페인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이 지난 11일 미약 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NO EXIT’ 캠페인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미약 중독으로 인한 범죄가 점점

심각성을 더해감에 따라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캠페인으로 미약에 대한 경각심 환기 및 미약범죄 근절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김영자 의장은 김영록 김제경찰서장의 지목을 받아 의장실에서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미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담은 미약예방캠페인 이미지 피켓을 들고 인증샷을 활용 SNS에 게시한 후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배규환 학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진형 남원경찰서장, NO EXIT 캠페인 동참

김진형 남원경찰서장이 지난 10일, 미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4월 26일 경찰청·미약퇴치운동본부가 시작한 캠페인으로 12월 31일까지 24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방식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미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인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뒤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이날 남원시 첫 주자로 김진형 남원경찰서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최경식 남원시장과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호원대-앤미디어, 협약 체결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지난 10일 서울 (주)엔미디어 본사에서 예능 및 팩츄얼 제작사 (주)엔미디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호원대학교 정의봉 부총장, 최부현·조현민 교수와 참석했고, (주)엔미디어에서는 강동길 대표이사, 유진희 전략기획본부장, 서보경 예능1 본부장, 임우식 팩츄얼 본부장 드라마 자회사 스튜디오 커피브레이크의 이승재·이지민 대표, 예능 자회사 스튜디오 콩그 김혜진 대표가 함께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방송·문화·예술·미디어 분야에서 콘텐츠 전문가 및 인재양성, 공동의 사업협력을 위한 긴밀한 교류가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관련 방송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협력 △방송영상사업 분야의 공동연구 및 개발 △양 기관의 영상 관련 실습 기자재 및 방송센터 공동 활용 △K-영상 콘텐츠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교환 △학생들의 실습·현장교육 및 취업관련 협조 △기타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협력 등이다.

정의봉 부총장은 “방송영상콘텐츠 분야의 인재 양성에 있어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연결 고리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예술분야 선도대학인 우리대학과 방송영상분야 선도기업이며 첨단 기술력을 자랑하는 (주)엔미디어가 만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동길 대표이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예술대학인 호원대와의 협력은 매우 의미가 깊다”며 “젊은 감각과 예술적 감성이 중요한 방송영상 분야에서는 창의적인 인재가 지속해서 필요한데 갑작적인 인재를 보유한 호원대와 협력해 한 후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민간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진행

남원시는 관내 민간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힐링캠프를 지난 5월 11일 거제도 저도에서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힐링캠프에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스트레스의 기중에 따른 정서적 소진 해소를 위해 심리치유 및 회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주요 일정으로 거제식물원을 관람하고, 대통령 해상별장인 저도에 방문하는 등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기관 간 사회복지사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힐링하는 시

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남원시는 민간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든든수당 지급,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힐링캠프가 복지 현장의 최前线에서 고생하시는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정서적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지자체 합동평가 선제적 대응 컨설팅 개최

정읍시는 지난 9일 ‘202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을 위해 전문가인 전북대학교 신학대학원 전북대학교 교수를 초청, 합동평가 담당자 교육 및 정성지표 우수사례 전시했다.

컨설팅은 정량 및 정성지표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의 전반적인 이해 제고 및 정성지표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작성 기법 컨설팅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합동평가의 평가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부서간의 유기적 협업으로 합동평가에 선제적 대응을 하는 만큼 금년도에는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시사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정운영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이다.

김용현 조합장은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정성껏 마련한 선물이 두 분께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방역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실시

정읍시는 지난 10일, 공감플러스센터에서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시장을 위한 읍면동 방역요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하절기 방역 활동을 시작하기 전 방역요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해충 방제를 위해 방역약품의 종류, 사용방법 및 사용기준, 방역장비별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론 및 현장 교차 교육이 진행되었다.

하절기 집중 방역은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읍면별 김염취약지역과 숲 하수구, 웅덩이 등에 성충구제와 확산제를 이용 연무방역을 마을별로 주 1회 실시할 계획이다.

손히경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방역종사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전환경 방역소독 실시로 해충을 통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체적인 생활환경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조합장은 “결혼식을 올리는 부부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정성껏 마련한 선물이 두 분께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